지상발명학교

⊙ 第8回 ⊙

아이디어창출및 발명의발상기법

유익한 정보만 수집하라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한다.

"자기가 자기에게 자신(自信)을 못가진다"는 말처럼 현대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두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기술혁신이 되면서 사회구조가 자꾸만 복잡해지고 한 사람의 인간의 두뇌에는 들어갈 수 없을만큼 알아야 할 것이 많아졌다.

박봉을 받더라도 짜고짜면 자기 일에 관해 한달에 한 권의 전문지나 한 권의 참고서를 살 수 있다. 그러기에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앞날에 닥쳐올 불안의 시대를 연구하고 그것에 어떻게 적응할까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불안의 시대를 알았다면 이미 그 불안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고, 앞날에 자신도 가질 수 있다.

아무리 궁색해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닥쳐올 정보산업 사회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현상에 만족하고 말거나 별로 밝지도 않은 앞날의 불안을 체념하여 적은 용돈이나마 더욱 잘 마시는 일에 그날 그날을 보내는 사람은 정보혁명이 미치는 변동에 휘말려서 언제까지나 사회의 밑바닥에서 신음해야 한다.

또 한편 많은 사람들 속에는 정보변혁이 가져오는 불안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아니 차라리 생각하기 조차 싫어한다. 비록 조그만 용돈이지만 담배를 피우고 커피 때로는 양주를, 그리고 읽는다면 스포츠신문 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체육계의 정보는 잘알고 있다. 모 야구선수의 연봉은 얼마며 다시 2년이 지나면 어디에 옮겨질 것인가는 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도움을 주겠는가? 좌담할 때 가끔 그런 정보를 전해서 야구광이라는 말이나 들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왕 정보통이 되려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면의 정보를 손에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체육계의 정보에 정통하는 것 보다 업계지나 참고

서를 사서 「나와 직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지에 100원이나 130원을 던지기 보다 전문지나 업계지나 참고서에 돌리는 편이 훨씬 득이 될 것이다.

결국 조그만 용돈일지라도 쓰기에 따라서는 또 그것이 100원이나 130원의 조그만 돈일지라도 쌓이고 모인다면 자기의 장래를 좌우하는 커다란 밑천이 된다는 것을 평소에 깊이 다져둘 일이다.

수집량이 발명을 좌우한다

유명한 실바나이트금광의 무도사장은, "나는 1온스의 금을 얻고자 4t의 광석을 빻고 체질하며 화학작용을 더하기도 한다"고 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선을 무엇으로 할까? 백금이

강 신 묵
〈새생각회 회장〉

면 될까? 대중이 쓸 수 있게 값싸고 강한 섬유는 없을까?" 하고 실험에 착수했다.

그렇게 실험한 것이 금속의 선이 6천가지, 동물의 털을 탄화시킨 것을 2천가지, 식물의 섬유 2천가지를 실험했다.

그래도 생각처럼 안됐다. 때마침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던 부챗살이 되는 대나무를 보고 실험하여 비로소 뜻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시 조수를 일본에 보내서 일본산 대나무 350가지를 수집하여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랐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탐구가이었던 것이다.

에디슨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한 사람에 식물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붙은 미국의 버어뱅크가 있다. 식물의 품종개량으로 식물의 발명왕이라 불렸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은 나타났다.

주먹만한 감자가 태어났다.

가시없는 선인장이 무럭무럭 자랐다.

씨없는 자두가 주렁주렁 열렸다.

"어째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까?"

우선 큰 딸기를 알아 보자.

그는 세계 각지로부터 종류가 다른 딸기 5천가지를 모아서 재배했다. 그것을 하나하나 조사했으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80만5천가지의 딸기를 재배하여 그것을 하나하나 교배했다. 그 속에서 단 하나 미국종 산딸기와 러시아종 딸기의 교배로 저 큰 딸기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그의 농장에는 30만 가지의 복숭아, 6만 가지의 감을 가득 심었다. 이렇게 많이 실험하면 그의 육감은 놀랍게 민감해지고 「조그만 변종」도 그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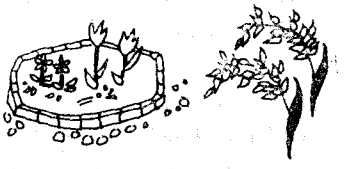
이처럼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키자면 「착상의 양」을 산처럼 쌓아 올려야만 한다. 좋은 암시, 나쁜 암시, 큰 암시, 작은 암시를 깡그리 쌓아올리는 작업이 발명이다.

수집하라 같은 것끼리

인류가 지금까지의 괴로운 사냥과 채집의 생활에서 일변하여 쌀밥을 먹고자 일 년에 한 번 씨를 뿌리고 한번 수확하여 한 해를 살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상의 큰 사건이며 이것은 팔 구천년 전의 신석기시대의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냥과 채집보다 작은 면적에서 대단히 많은 수확을 올린 생산을 높이는 현실과 앞을 내다보는 행동이 함께 들어 있다.

이 땅에 정착하자 마을이 생기고, 도시와 나라를 발달시켜 여가를 낳고 이 여가로 토기를 만들어 석기시대를 벗어났다. 이 "근본이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의 물음에 「농업」이라는 답이라면 사물을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낙제다. 그렇다면 "왜"냐고 캐고 든다면 해답의 하나는 "같은 것을 모은다."는 형식이 된다.

벼와 수박, 옥수수를 함께 섞어 심은 것이 아니다. 벼는 벼대로 모아서 재배했다. 거기서 생산 공정이 분명해지고, 생산관리가 쉬워졌다는 형식이 생겼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을 모은다"는 재배 방식은 그 후 현대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채소나 벼, 밀은 재배법이 다르나 그 다른 재배법을 하나의 재배라고 하는 형식에 넣어 이해하는 소위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뒤에 이 "같은 것을 모은다"는 생각과 "인공으로 재배 사육한다"는 생각은 누에를 치거나 양치기나 양계가 되고 짚·솜·깃을 모아서 이불을 만드는 쪽으로 발전했다. 〈ㅎ〉